강진군 서리태 계약재배 면적 6배 대폭 확대한다

양곡·제과업체와 약 540톤 규모 계약 농가소득 창출 기대

강진군이 최근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전략작물중에 하나인 논콩 현장 파종 지도를 적극 추진, 농업인 소득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시범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신품종 서리태 '청자5호'를 올해 면적을 6배 확대한 180ha의 규모로 약 540톤을 전량 계약재배로 추진한다.

쌀 생산량 조정 정책으로 추진되는 논콩 재배의 경쟁력 있는 추진을 위해 강진원 군수의 의견 제시로 작년부터 시작한 서리태 계약재배는 올해 150ha의 규모로 국내 굴지의 양곡유통회사인 ㈜두보식품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제과업체와 약 30ha의 규모로 계약했다.

계약된 서리태는 대부분 병영면을 중심으로 한 북삼면(병영·옴천·작천면) 지역에서 재배한다. 병영면 서리태연구회와 옴천면 착한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공동 생산 작업으로 고품질 서리태 원료곡을 약 54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올해 재배가 될 서리태 품종인 '청자5호'는 기존 서리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으로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량이 30%가량 높은 품종이다. 또한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수확이 수월한 장점이 있어 나날이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논콩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청자5호'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과 같은 기능성, 높은 당도와 단백질 함량, 장류 가공 때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을 내는 특성에 따라 가공업계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에 작년 30여농가, 30ha를 시범 재배해 성공적으로 유통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6배 확대된 180ha 규모의 계약재배를 성사시켰다.

올해 강진군 논콩 목표재배 면적은 700ha이나 벌써 781ha를 넘겨 목표를 초과했다. 서리태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일반 논콩인 백태에 비해 소득이 높은 서리태 면적을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벼를 대체할 효자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7월 1일부터 4일까지 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화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벌꿀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가격대를 달리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신청·접수는 7월 1일(화)부터 7월 4일(금)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의 안정성, 우수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8월부터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게 된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순에 애정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한층 다양하고, 품질 높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담양군,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담양군은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사업체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정책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2024년 중 조업실적이 있으며 12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90개소)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총 13개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면접조사와 함께, 인터넷,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응답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우리 군 광업·제조업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조사 대상 사업체는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통계청에서 잠정 발표되며,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최종 수록될 예정이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특이민원 폭언·폭행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민원실에서 무안경찰서와 함께 특이(악성)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 진정 유도 ▲촬영 고지 및 피해 상황 기록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 대피 ▲문제 민원인 경찰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군은 관내 9개 읍 · 면사무소에서도 무안경찰서와 연계한 모의훈련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집중호우에 신속 대응… "군민 안전 최우선"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14일 오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영광군 전역은 평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및 농경지 일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오전 백수읍, 군서면, 염산면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확한 피해사항 확인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대응과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함평군4-H연합회, 친환경 농업 공동과제포 현장교육 성료

전남 함평군4-H연합회(회장 정유한)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16일 "함평군4-H연합회가 지난 13일 학교면 월산리 소재 4-H연합회 공동과제포(면적 2,460㎡)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4-H연합회원 및 지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공동과제포의 안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 교육, 회원 대상 친환경 의식 개선 및 지역사회 청년 조직체 리더의 역할 강화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 수칙 마련 및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영농·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으로 '플로깅'도 함께 실시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평/전광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